

# 운봉고원 일대 가야제철유적 확인

### 만복대~바래봉 산줄기 양쪽에 20여개소 · 지리산 달궁계곡 일원에 10여개소 대규모 유적 분포

남원 운봉고원 가야 제철유적이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남원시가 지리산 자락 운봉고원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 제철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봉고원 일대에서 30여개소의 대규모 제철유적이 집중 분포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4월부터 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박장근)에서 진행 중인 이번 조사는 백두대간 만복대에서 바래봉까지 뻗은 산줄기 양쪽에 20여개소와 지리산 달궁계곡 일원에 10여개소의 제철유적이 집중 분포된 것이다.

이에 운봉고원은 장수 대적골 일대의 제철유적과 함께 대규모 가야제철유적의 분포지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바래봉 북쪽 옥계동(현 운봉읍 화수리 일대) 제철유적은 천혜의 자연분지에 슬래그(광물 재련 찌꺼기)의 분포 범위가 500m에 달하고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조사 때 기벽이 상당한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어 제철유적의 운영된 시기가 삼국 시대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리산 달궁계곡에 소재한 마한 왕의 달궁터 부근의 하점골(현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은 운봉읍 공안리, 수철리 제철유적과 함께 유적의 범위가 넓고 유구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17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2016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전주시역 한마음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행사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유공 범사량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곳이다. 이는 운봉고원이 진안고원 속 장수군과 함께 가야 영역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호남지방 최대 규모의 제철유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운봉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주요 유적은 마한의 말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 등 그 수가 100여기에 달했다. 1980년대 초 남원 월산리에서 처음 시작된 가야계 분묘유적 발굴조사에서 가야계 소곡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준 것이다.

삼국시대 최고의 위세품인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철제초두,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는 운봉고원의 가야계 고층에서 한 점씩 출토되었다. 모든 종류의 철기유물이 가야계 고층에서 다량으로 쏟아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운봉고원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시작된 철산개발이 후백제까지 계속돼 당시 전북지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운봉고원을 무대로 역동적으로 전개

된 전북의 고대문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발견된 제철유적은 전북의 가야 세력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이므로 내년부터는 남원과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 가야제철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가야세력의 실체를 확인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익산시,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 만경강 철새 고병원성 시 항원 검출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1월 11일 만경강 일원 철새 32수를 포획해 정밀검사한 결과 16일 흰뺨검둥오리 1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 항원 양성이 최종 확인되자 익산시가 곧바로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방역 강화에 나섰다.

방역대책 상황실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포획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발생 시 예찰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이행한다.

관리지역의 사육농가는 8농가 26만2,800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시료채취일(11. 11)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각각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닭과 오리를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조치 기간 내 오리나 반송·입이 금지되지만, 출하 3일전 혈청 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에 출하가 허용된다.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 하에 반송·입이 허용된다.

또한, 시료가 채취된 만경강 일원에 철새도래지 접근금지 및

출입자제 현수막을 긴급 설치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차량 접근을 일절 차단하고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전화예찰 등을 실시하고, 방역차량 2대를 이용 철새 도래지에 배치하여 방역조치 기간 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의심신고 사례가 없으나 철새에서 항원이 발견된 만큼 이동범위가 넓어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이 가능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집단모임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철새와 사육가축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주위 그물망을 설치하고 사료를 내부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변에 의심이 가는 가금류나 야생조류 발생시 즉시 1588-4060 또는 익산시 축산과 859-5269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정광수 축산과장은 "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에 아침 축사에 출입 전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구서작업과 생석회 도포를 철저히 해 외부 바이러스가 축사 내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한일군사정보협정 협의 중단' 촉구

### 국회 외통위, 결의안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일 양국 정부가 가세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과 관련,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한일 정부의 GSOMIA 체결 재추진 결정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추진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규탄하고, 이에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잘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제안에 대해 상정자제를 안할순 없다. 국회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회부해 주신 GSOMIA체결협의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 의견제시건을 추가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GSOMIA결의안에 대해 안전 조정 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며 "안전조정 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위원장은 "저희가 전문위원들과 의논했더니 안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원내 제1 교섭단체 소속 3인, 기타 3인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 6인으로 하게끔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한다"며 "위원장에서 저는 이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에 비추어 세분 간사께서 신속히 안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안전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인 끝에 정회했다. /뉴시스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정 파탄도 최순실 영향 의구심"

"무상보육 누리과정 파탄도 최순실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관련사진 3번>

어린이집연합회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 인상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라며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2017년은 전북 방문의 해" ... 3500만명 유치

###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FIFA U-20 월드컵 ·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관광 등 활용

전북도가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2017년을 전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내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규모는 2015년보다 18%가 증가한 3,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최근 관광행태 다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3대 추진전략과 5대 분야 29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다각적인 관광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내세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광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Grand Sale Week' 운영, '전북 투어 패스 체험수기 공모전', '외국인 단체 관광객 Royal 특별 인센티브',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 '세계문화유적 탐방 캠퍼', '맞춤형 수화여행 유치 고도화' 등이다.

도는 또 토틸 관광 시스템, 관광 패키지(전북 투어패스) 등을 기반으로 도내 주요 자연·생태 관광명소를

홍보해 관광패스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관광 가능 지역에 전북이 추가됨에 따라 2017년 청주공항-충북-전북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중화권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 추진이 도내 관광시장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법도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